

교회소식

1. 성전 이전을 위한 전 교인 합심 기도 시간을 밤 9시로 변경합니다. 각 공동체장들은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마음이 되고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신앙의 진보가 있도록.

2. 오늘은 그루터기(30, 40대 성도) 주일입니다. 젊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 인도자 성경공부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느헤미야 실).

4. 다음 주일은 권사 기도회 주일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5.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디자인, 내용 등)을 알려주십시오.

6. 교회 옛 건물(벽돌)은 “St David’s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들” 재단으로 기증이 되었고 목조 건물과 주차장은 다시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7. 성전 이전 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A u g u s t

교회사역일지

8월 8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8월 15일(주일)
그루터기 주일
8월 22일 (주일)
권사 기도회
8월 25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기도순서

8월 22일 (주일)
박병민 장로
8월 25일 (수)
김민경 집사
8월 29일 (주일)
손조훈 집사
9월 1일 (수)
김선화 권사

8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김영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그루터기 주일

23권 33호 2021.08.15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 찬양 예배) 이성훈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 름 ----- 시편 106:47-48 ----- 인도자

❖ 찬 송 ----- 37장 ----- 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 다함께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84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이광희 장로

성 경 봉 독 ----- 에베소서 3:14-21 -----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이태한 목사

특 송 ----- 은혜 ----- 그루터기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 다함께

❖ 응 답 송 ----- 171장 (1절) ----- 다함께

❖ 축 도 ----- 이태한 목사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 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훈
전 도 사 김 양 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오클랜드에서 사역하는 장세중 선교사 소식입니다.

평안하시죠?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의 소식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소식을 나눠드렸던 D형제의 난민 결정이 정부 법정기관의 항소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6년의 기다림 가운데 다시 재판으로 진행이 뒀에 있어서 낙담하며 아파하는 D형제가 더욱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D형제의 변호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시리안 가정과의 Eid Al-Fitr: 라마단이 끝난 후 6년을 함께 좋은 이웃으로 지내온 시리안 가정 친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형제가 현재 시리아의 힘든 상황을 나누는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지 11년이 지난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처를 잃은 난민이 되었으며, 현지에 있는 가족들은 우유 한 병을 구하는데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온 형제가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이 형제는 20대 초반에 중동에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본패를 보여 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청을 하기 시작하여 뉴질랜드에 와서 구주를 만난 친구입니다. 호텔의 한 빌라를 빌려 휴가를 보낼 정도로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구주를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그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뉴질랜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막 13:44-45) 사는 지체의 모습은 저희에게 큰 축복이며, 또한 겸허하게 이 땅에서 구주를 따르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찰하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에는 한 중국인 교회의 영어예배와 두 곳의 선교 컨퍼런스에서 각각 말씀과 사역 나눔 및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에 한 대만 자매가 찾아와 “나는 너를 알아요! 에스더와 결혼 한지 얼마 안 돼서 FFF에 방문했었어”라며 인사했습니다. 자매는 두 명의 목사님을 데리고 FFF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저희에게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아 갔었고, 나중에 한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7년 전에 방문했던 지체들을 기억으로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당신의 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클랜드에서 J 선교사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김명옥 집사
성	경	Scripture	여호수아 14:6-12
설	봉	Sermon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교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353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 설교말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창세기 24:50-58

오스왈드 샌더스(Oswald Sanders)는 책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50).

1) 리브가의 삶: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리브가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는 리브가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었으며 리브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보셨습니다(시 139:16). 수태고지의 말씀을 받은 후에 삶이 변했던 마리아처럼(눅 1:47-48) 리브가의 인생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신 것을(엢 1:4)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롬 5:8)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만 확신 되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읽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 리브가의 결혼: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배우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혼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믿음의 가계를 세워가고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던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는 종의 모습과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롬 10:17). 성도의 삶의 자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여호와와 명령대로 하라고 했습니다(51). 이때 종은 이들에게 감사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52). 시작도 과정보도 끝도 기도하던 이 종은 자기의 수고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마 26:39).

3) 리브가의 결단: 리브가는 섬섬해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종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58). 아브라함처럼 가족을 떠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단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단하고 떠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베드로처럼(눅 5:10-11),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빌 3:7-9) 나의 가치관이나 내 삶의 방법 등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던 복은 남의 것이 됩니다. 결단의 시간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기에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으로 참 복을 누리는 갈보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종교기관이 아닌 영적인 실체가 역사하는 구별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2. 사랑과 이해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3. 팬데믹으로 침체된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지친 열방의 백성에게 위로가 있도록.